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40 관촬카메라 24시간(재) 50 신대동여지도(재)	00 KBS 뉴스광장	4:00 여기는 브라질 16강전 (독일vs알제리)	5:00 브라질 월드컵 16강전 (독일-알제리)	5:00 브라질 2014 16강전 (독일-알제리)
7	50 인강극장	0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하이라이트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새 시도지사에게 듣는다 15 컷모닝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00 한국의 맛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쇼	30 KBS 뉴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2014 브라질 월드컵 하이라이트 올라! 브라질	10 좋은 아침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채널	5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아레나	45 기분 좋은 날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KBS내트위크특선 투명소스 영남영 제주년기 55 바른길 고을말	45 월화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재)	00 MBC 정오뉴스 20 우리가락 우리문화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0 VJ 특공대(재)	20 MBC 정오뉴스 20 우리가락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30 브라질 2014 하이라이트
1 30 뉴스특급	00 시사기획 창(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20 통일전망대	00 TV속의 TV	20 SBS 뉴스 30 내트위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2 40 직언직설	10 국제공동제작 KBS 파노라마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는 지금	00 TV속의 TV	20 SBS 뉴스 30 내트위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0 정오공론 시사쟁점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25 마스크 마스크즈 55 TV 유치원 풍다공	00 MBC 경제뉴스 10 아웅다웅 동화나라(첫회) 40 헬로키티 공룡이 살아있다!	10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4 50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튜튼 생활채널	25 애니월드 55 가족의 품격 토크하우스(재)	30 특? 특! 키즈쿨	00 품의 보석 프리즘스톤 60 내마음의 크레파스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은 그래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파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00 SBS 뉴스파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빠꾸기 등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자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사랑만화)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임마의 정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현장 21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00 월화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30 리얼스토리 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현장 21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필	00 월화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00 월화특별기획 (트라이앵글)	00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라인	10 우리동네 예능	15 PD수첩 100회 특집 3부작	15 심장이 뛰다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특별기획 스마트 웨어블 용, IT를 읽다	30 국악의 향기 ①:20 고향극장(재)	30 여기는 브라질 16강전 (아르헨티나vs스위스)	10 MBC 뉴스24 20 브라질 월드컵 16강전 (아르헨티나:스위스)	①:35 브라질 2014 16강전 (아르헨티나:스위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35 뽀빠	14:15 시계마을 티키토	17:45 바이오박성의 파오파오
05:40 성공 인생 후반전	09:40 부모 (청개구리 길들이기)	14:30 부릉!부릉! 부릉미즈	18:00 생방송 퓌트! 보니하니
06:10 명의 3.0(재)	10:10 EBS 특강	14:45 미앤미로봇	19:00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재)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15 모피와 친구들	19:50 극한직업(재)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세계테마기행(재)	15:30 제로노미의 모험	20:40 다크 오브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0:5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2	16:10 풍구가 말해줘(재)	(중국한시기행5 현장 2부)
08:10 풍구가 말해줘	13:05 지식채널e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30 한국기행 (서울역사기행 2부)
08:20 두다다공(재)	13:10 출가순수 EBS MATH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디큐프라인
08:35 방구대장 뽀롱이	13:20 와글와글 친구들	16:45 곰피와 친구들(재)	(치매라도 괜찮아 3부)
08:50 곰피와 친구들	13:30 꼬마 기사 마이크	17:00 방구대장 뽀롱이(재)	22:45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9:05 바이오박성의 파오파오(재)	13:45 치료와 친구들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3:35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
09:20 부릉!부릉! 부릉미즈(재)	14:00 헬로 코코롱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4:05 지식채널e(재)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00:10 " (수학 I)(재)	불교문화 (수학 4-1)
00:50 " (수학 II)(재)	12:15 승승특강 (수학 I A형)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13:05 " (수학 II)
02:30 " (수학 I)	14:00 " (국어 A형)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5:00 " <한국사상>	16:30 "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B형>	17:20 " (세계지리)
06:40 암흑탐스런 <화학 I>	18:10 "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	20:00 EBS-N제 <국어 A형>(재)
09:10 " <수학 I>(재)	21:00 " <수학 A형>(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10:50 2013 포스 <수학 I B형>(재)	<화법과 작문>특사와 문법 B형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 (수학 4-1)
07:30 친절한 수학 위험물 5-1	16:20 " (수학 4-1)
08:0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강좌	16:50 " (수학 6-1)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09:00 출가순수 EBS MATH	<수학집중 5-1>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8:00 TV 중학 <영어 3-1>
09:50 " <수학 I 상>	18:40 " <수학 3-1>
10:30 " <역사 2>	19:20 등업신공 <수학 3-1>
11:10 " <국어 ③④>	20:00 중학 개념 끝장내기 <국어>
11:50 " <수학 2(상)>	20:40 " <영어>
12:30 등업신공 <수학 1(하)>	21:20 " <과학>
13:10 " <수학 2(하)>	22:00 " <수학>
13:50 " <과학 2(하)>	22:40 성교육 애니메이션
14:30 " <수학 2(하)>(재)	23:20 중학 e포스 영문법1
15:20 만점왕 <수학 3-1>	24:00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일 (음 6월 5일 癸酉)

子	36년생 갖추고 있어야 제 때에 활용할 수 있다. 48년생 잘 따져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0년생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는 법이다. 72년생 능히 해내리라. 84년생 활동력과 단련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62, 80	午	42년생 예의 없이 적용 될 것이니 준비를 해야겠다. 54년생 상서로운 빛이 비치니 길한 조짐으로 봐도 된다. 66년생 갑작스런 변화가 보인다. 78년생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런대로 관용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행운의 숫자 : 02, 66
丑	37년생 기쁨이 보인다. 49년생 잠시 오묘세를 보이다가 소강상태에 빠지는 형태이다. 61년생 소리 소문도 없이 나타날 것이다. 73년생 간절하게 바라더라도 내색할 때가 아니로다. 85년생 씨앗이 관촬은 편이다. 행운의 숫자 : 16, 87	未	43년생 객관화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느니라. 55년생 한데 모여야 비로소 갖추어질 것이니라. 67년생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과 요령이 필요한 때이다. 79년생 한꺼번에 처리한다면 효율적이나, 행운의 숫자 : 21, 40
寅	38년생 세부적인 점검과 면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50년생 확일적인 시각은 오류를 부르기에 충분하다. 62년생 필히 상호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74년생 여변인 차선책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리라. 행운의 숫자 : 75, 07	申	44년생 시간을 아끼며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할 때이다. 56년생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느니라. 68년생 정도를 줄여야만 재앙을 피해 갈 수 있다. 80년생 가다부터 잡아가는 것이 실효이다. 행운의 숫자 : 48, 30
卯	39년생 유연한 사고가 원만함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51년생 멀리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비취고 있다. 63년생 기만하게 대처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 75년생 귀중한 협력자를 만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6, 53	酉	45년생 잠시 주춤했다가 본격으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57년생 겉모습은 별로지만 실상은 양호할 것이다. 69년생 전체적으로 힘든 판국이나 변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니라. 81년생 점차 코 보고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31, 49
辰	40년생 행운에 힘입어서 일취월장하리라. 52년생 특실의 차가 작으니 큰 의미는 없었다. 64년생 불당을 빌려 주니 안방까지 달라는 이가 보인다. 76년생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행동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09	戌	46년생 흥정을 잘 벌인다면 두둑한 사재가 따를 것이다. 58년생 무거운 책임으로 인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겠다. 70년생 한 번 풀리면 실타래 풀리듯이 할 것이다. 82년생 어려움은 보이지만 맞서 볼 만한 게임이다. 행운의 숫자 : 72, 24
巳	41년생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느니라. 53년생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흉이 된다. 65년생 부실함은 단순한 속단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77년생 알뜰한 생활 자세가 견고한 삶의 기반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4, 60	亥	47년생 세심하지 않으면 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59년생 재물이 나타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라. 71년생 재물이 지레 하니 진중하게 대응하면 유효하다. 83년생 막연한 기대는 실망감만 안겨 줄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4, 6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영광과 상처 ... 'PD수첩' 1000회

‘돈으로 보는 대한민국’ 3부작 특집 방송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를 자처한 PD수첩은 1천 회를 거치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PD수첩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하지만 대담한 기획과 굵직한 특종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든 PD수첩의 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직한 목격자 자처...그 영광과 상처=PD수첩이 그동안 다른 수천 개 소재는 파란의 1990년대, 2000년대와 궤를 같이한다.

PD수첩은 1990년 5월8일 다국적 기업의 한국 여성 근로자 무단 해고 사태를 그린 ‘피코 아줌마 열 받았다’ 등 4개 짝지를 선보이며 첫 전파를 뒀다. 이후 정치와 경제, 종교, 역사, 인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부조리와 모순을 심층적으로 고발하는 PD 저널리즘의 새 영역을 개척했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PD수첩 제작진들은 거대권력이나 시대의 금기를 조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위협을 받았고 순식간에 국민의 공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1999년 ‘이단 파문, 이재록 목사-목자님 우리 목사님!’ 편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의 방송사 주조점심 절거로 방송 도중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2005년 황우석 보도는 PD수첩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다.

PD수첩은 2005년 11월 방영된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을 시작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쫓겨’라고도 일컬어졌던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출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망했다.

PD수첩은 취재윤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국민 사과에 이어 방송 폐지 위기에까지 내몰렸다.

당시 책임PD였던 최승호 PD는 “가장 많이 두려워했던 것은 황우석 사태 때였다. ‘MBC는 왜 그래’하는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럼에도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지리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최근 신간에서 밝힌 바 있다. 2008년 4월 방영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인가’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방송은 전국적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불씨를 지폈다.

이밖에 ‘미군 전차와 두 여중생’(2002), 삼성 일가를 다룬 연속 기획 보도, ‘검사와 스폰서’(2010), 민간인 불법사찰을 다룬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2010년) 등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술한 논란의 중심...예전보다 파급력 약해=장훈 감독의 영화 ‘의형제’에는 ‘PD수첩은 오류수첩이었다’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PD라는 새끼가 빨갱이니...”라는 대사가 화면에 등장한다.

PD수첩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분열하는 상황에서 보도 내용의 객관성과 방향성 등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잦은 송사에도 휘말

소유·정기고 ‘썸’, 상반기 결산 차트1위

음악 사이트 지니 ... 2위 ‘렛 잇 고’

썸스타의 소유와 가수 정기고가 듀엣한 ‘썸’이 KT뮤직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 ‘지니’에서 올 상반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곡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30일 입수한 지니의 2014년 상반기(1월1일~6월 29일) 차트 분야별 결산 데이터에 따르면 ‘썸’은 실시간 차트서 총 688시간 동안 1위를 한 것으로 집계되며 종합차트(스트리밍+다운로드) 정상에 올랐다.

지난 2월 발매된 ‘썸’은 ‘썸 타는’(남녀가 연인이 되기 전 핑크빛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 트렌드를 가사에 반영한 경쾌한 곡으로 대중의 오랜 사랑을 받았다. 이 곡은 지니의 스트리밍 차트와 다운로드 차트에서도 모두 1위에 올랐다.

종합차트 2위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곡인 ‘렛 잇 고’(Let It Go)로 실시간 1위를 한 누적은 292시간으로 집계됐다.

3위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4위는 걸스데이의 ‘섬섬’(Something), 5위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 차지했다. 또 악동뮤지션의 ‘200%’가 6위, 투애니원의 ‘컴백홈’이 7위,



했다.

MBC 내부에서도 제작진 인사와 방송 사정검열, 불방 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경영진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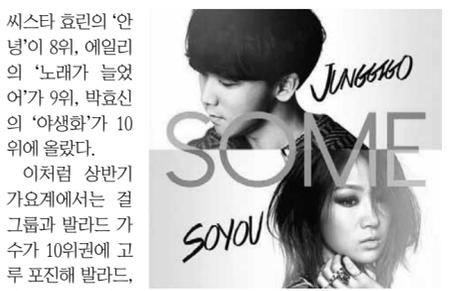
2012년에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이어 작가 해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11개월간 방송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그 와중에 PD수첩의 간판 PD였던 최승호 PD는 해고됐다.

광우병을 보도한 제작진은 검찰에 체포되는가 하면 2011년에 이어 올해 다시 회사로부터 연거푸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PD수첩 영향력은 예전보다 위축된 모습이고 시청률도 싹둑 떨어졌다.

오히려 미스터리 아이템 부문에서 강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 전부터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주목받는 현실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을 추적한 ‘죄와 벌-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이나 ‘일베와 행계-어디에도 있고 아무데도 없다’ 등으로 대중적으로 큰 반향을 낳았다. PD수첩이 세태를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 감시라는 본디 역할에서도 좀더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유·정기고 ‘썸’, 상반기 결산 차트1위



씨스타 효린의 ‘안녕’이 8위,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가 9위, 박효신의 ‘야생화’가 10위에 올랐다.

이처럼 상반기 가요계에서는 걸 그룹과 발라드 가수가 10위권에 고루 포진해 발라드, 댄스, 미디움 템포의 팝 등 여러 장르가 사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 그룹의 곡은 종합차트에 한 곡도 진입하지 못하는 등 아이돌 음악 유행 현상이 둔화하는 경향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됐다.

지니의 한 관계자는 “특히 상반기에는 시각적으로 강렬한 음악보다 달콤하고 서정적인 노래들이 큰 인기를 얻었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계절적인 요인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데뷔 40주년 ‘전영록’의 음악세계

EBS ‘스페이스 공감’ 3일 밤 12시 15분 방송

EBS TV ‘스페이스 공감’은 3일 밤 12시15분 특별기획 ‘다시, 공감’에서 가수 전영록<사진>편을 방송한다. 가수 데뷔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전영록이 출연해 히트곡뿐만 아니라 그가 작곡한 명곡들을 새롭게 들려준다.

1971년 영화배우로 먼저 데뷔한 전영록은 1975년 1집 ‘나그네 길’을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후 ‘볼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저녁별’ ‘그대 우나봐’ ‘하얀 밤에’ 등 술한 히트곡을 배출한 그는 1979~1989년에 걸쳐 ‘10대 가수상’을 열 차례나 수상했다.

또 이지연의 ‘바람이 멈추어다오’, 양수정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오’, 김지애의 ‘알미운 사람’, 김희애의 ‘나를 잊지 말아요’도 모두 전영록의 곡이다. 제작진은 “전영록의 노래들은 어렵지 않고 따라 부르기 쉽지만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여운을 준다”며 “어느덧 데뷔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관록의 뮤지션 전영록의 멋진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전영록의 공연에 이어 랠리시윌과 게이트 플라워즈의 공연도 펼쳐진다. /연합뉴스

